

외산담배 PX 판매...전남 외산담배 농가 고사 위기

가격 인상 이후 판매량 급감...군 판매 허용에 이종고 재배면적 15년간 4.5배 감소...국방부 결정 철회 촉구

군(軍)에서 외산 담배 판매가 이달부터 허용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외산담배 재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담배가격 인상 이후 판매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 매점(PX)마저 외산담배가 비치고 들어가는 데 외산담배 재배가 반 자체가 붕괴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산 외산담배가 KT&G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전량 생산되는 탓에 외산담배의 군 진입은 국산 담배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고, 결국에는 농가 재배면적 감소 및 수매대금 동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2일 광주·전남연합조생산조합에 따르

면 광주·전남에서 외산담배를 재배하는 농가와 면적은 지난 2001년 5081명, 면적 1892ha였던 것이 올해는 741명, 면적 420ha로 줄었다.

15년 사이 농가수와 면적이 대폭 줄어든 것은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국산 담배 판매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지난 1일부터 PX판매대에 외산담배를 올리면서 수십년간 외산담배 농사를 고집해온 농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외산담배의 군 진입은 필연적으로 국산 담배 판매량 감소, 농가 재배면적 감소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국산 담배 판매량 감소는 KT&G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외산담배 수매대금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농가엔 근심거리다. 최근 2년간 외산담배 수매대금(평균)이 kg당 8832원으로 동결된 상황에서, 외산 담배의 군 진입이 매년 말 이뤄지는 KT&G와의 수매대금 협상 테이블에서 또다시 '동결'을 결정 짓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흡연 남성들 상당수가 군에서 담배를 처음 배우고, 남성들이 한 번 결정하고 피운 담배는 수년간 지속해서 피운다는 특성도 농가들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하고 있다. 군에서 외산 담배에 맞선 장병들이 이후에도 외산 담배를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국산 외산

담배 농가의 설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광주연합조생산조합 오세균 조합장은 “군 장병에게 국산 담배와 외산 담배를 골라 피울 수 있게 해 복지를 증진한다는 군 당국은 왜 이번 결정으로 타들어가는 우리 농민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나”면서 “농가들을 사지로 내모는 군의 이번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농가들과 연대해 강력한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 국군복지단 자체 심사를 벌여 이달 1일부터 미국 필립모리스의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과 일본 JTI의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를 군PX에 판매하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군에서는 국산 18종, 외산 2종 등 20종의 담배가 팔리고 있다.

/영광=이종운기자 jylee@kwangju.co.kr

“인권위가 채용 차별” 광주인권지기 주장

6급 조사관 변호사로 자격 제한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 차별을 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 ‘광주인권지기 활짝’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사무소의 6급 조사관을 채용하면서 인권조사와 상담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데도 변호사로 자격을 제한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일반직공무원 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내고 광주인권사무소 ‘조사 및 상담’ 업무 분야의 인력으로 6급을 채용하면서,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했다.

활짝은 “인권 관련 조사와 상담은 그에 대한 적절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며 “실제 인권위에서 조사와 상담 업무를 보고 있는 절대다수가 변호사가 아닌데도 인권위는 변호사 이외의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지역인권사무소의 경우 그동안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의 직원으로 인력을 구성했지만 법률전문가가 없어 조사·구제를 위한 법리검토에 대한 역량 보완이 요구돼 왔다”며 “이번 채용도 지역에서 양질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제반 규정 준수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동성여중 학생들이 12일 학교 뒷편에 조성된 누리동산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동성여중은 누리동산에서 야외수업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꽃 피고 새 우는 동성여중 자연교실로 초대합니다”

스승·제자 힘모아 교내 유희지 녹색쉼터 조성

광주시·남구청·교육청 등 지원...2년만에 결실

광주 동성여중이 도심 속 학교 내 버려진 공간을 넓은 공원으로 조성,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학교법인 유은학원 동성여중은 학교 건물 뒤편 유희지(2100㎡)를 개울물이 흐르고 계절별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녹색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 2014년 첫 삽을 뜬 뒤 2년 만에 모두 1억2000만원을 들었다.

공원 조성은 아파트 단지외 상가 건물

로 학교가 둘러싸이는 등 주변 풍경이 삭막하게 바뀌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교직원과 학생들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산림청과 남구청이 학교측 취지에 공감, 힘을 보탤 것 지난해에는 시청과 시교육청도 거들었다.

학생들과 학교의 아이디어가 담긴 공원 조성 사업비는 이렇게 마련됐다.

공원을 꾸미고 가꾸는데도 적극적이었다. 공원을 둘러 야생화 꽃씨를 뿌리고 꽃이 피어날 공간을 고려한 산책로를 냈다.

중간공간 쉬어갈 벤치도 놓도록 했다. 아가지기한 개울을 조성해 수생식물이 성장하는 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소규모 공연장까지 조성, 꽃향기를 맡으며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측은 숲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나 환경 강좌도 마련해 학부모들과 주민들을 초청하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오학기 교장은 “학생·교직원들의 열정과 주변 공공기관 등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누리동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교의 자랑거리, 지역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0, 해질 19:28, 달 뜨기 11:39, 달 지기 00:37

금·토요일 '화창'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구름많음	14/24
전남	구름많음	13/20
전북	구름많음	14/25
충청	구름많음	14/21
경상	구름많음	14/21
강원	구름많음	12/20
제주	구름많음	14/24
서울	구름많음	12/25
부산	구름많음	13/21
대구	구름많음	12/24
인천	구름많음	12/22
대전	구름많음	12/22
울산	구름많음	12/22
충남	구름많음	12/22
경북	구름많음	12/23

◇비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서해안	서~북서 0.5~1.0	북~북동 0.5~1.0
남해안	서~북서 1.0~1.5	북~북동 0.5~1.5
남부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안(동)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서부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생황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높음
- 한때나쁨 미세먼지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14(토)	구름많음	15/27
15(일)	구름많음	16/24
16(월)	구름많음	15/21
17(화)	구름많음	12/25
18(수)	구름많음	13/26
19(목)	구름많음	14/26
20(금)	구름많음	14/26

광주 부교육감 문책성 연수 명령 논란

교육부, 누리예산 갈등 관련...3개월 교육 통보

황희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돌연 교육부로부터 연수 명령을 받으면서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황 부교육감은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받을 것을 통보 받았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으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 황 부교육감의 갑작스러운 연수 통보를 문책성 인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중앙공무원연수원의 고위공직자 과정(보통 1년)보다 짧은 3개월인데다, 별다른 인사 요인이 없었던 점 등도 이런 시각에 더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이같은 연수 과정을 만들

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관련,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며 대립해온 지역 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경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 하면,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황 부교육감은 “혁신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광주 교육을 위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민변 광주전남지부, 18일 공익인권세미나

테러방지법 독소조항과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등에 관한 공익인권 세미나가 열린다.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상훈)는 오는 18일 오후 5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에서 공익인권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차선자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진행으로 전남대 리걸클리닉 소개와 발전방향,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토론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보청기 www.maxo.co.kr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스'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스'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스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스 '1,2,3' **맥스 '애비오'** **맥스 '스콧프'** **맥스 '크리스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스를 시험견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범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 - 직영가·18개월 무이자 할부·렌탈·편리한 직영 시스템

◆정안본사 02)2248-5600 ◆충북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경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30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99-9040